



이 경 원  
(미국대두협회 한국지회 대표)

##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개인의 마음도 때에 따라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생각하면, 하물며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떤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각기 다른 성격, 취향, 경제적 여건, 교육환경 등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에서 처럼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그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의견일치를 못볼 때에도 한가지 공통되는 점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한결같이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이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손실이 될 때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모임에서 이해의 상충이 없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서부개척 당시의 실화로 두형제가 서부로 가기 위해 하나의 포장마차에 짐을 싣고 수개월이 걸리는 서부로의 길에 올랐다. 어느 갈림길에서 이 두 형제의 의견이 서로 달라 형은 이 길로 아우는 저 길로 가겠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타협이나 합의를 못본채 마차를 톱으로 잘라 형은 앞쪽의 반을 아우는 뒷쪽의 반을 나누어 두 바퀴만 붙은 마차의 반쪽만을 갖고 두 형제 모두가 좌절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공통의 길을 떠났어도 후에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와 그 차이를 좁히려는 대화와 타협의 결여로 거창하게 출범한 우리의 기구도 좌초 또는 파선의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서는 의결(議決)이라는 절차가 있어 의논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수의 다른 의견이 공동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이때 의논과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특히 중요하다. 첫째, 의논에는 참여가 중요한데 구성원이 직접 또는 대의(代議)제도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도 참여하여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 백화만발(百花滿發)이란 말처럼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의견이 모여 다듬어질 때 그 결과는 보다 많은 사람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이 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참여자는 자기의 의견이 스스로에게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독선을 피해야 한다. 「대화를 가장 잘 하는 사람은 가장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구성원 상호간의

“

“나”가 모여 “우리”가 되듯이  
 “나 하나 짬이야”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발전의 한길로…

”

의견개진과 경청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이 내게 틀리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나의 의견도 상대방에게는 못마땅하고 틀리게 들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나 하나하나가 모임이나 단체의 주인임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이 나라, 이 회사, 이 협회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졌고 내가 바로 주인임을 잊는 수가 있다. 주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인기위주의 발언이나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주인의 태도가 아니다. 넷째, “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하나 짬이야」하는 생각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나”가 모여 “우리”가 된다는 말은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나하나 짬이야”하는 태도로 건설적 참여없이 비판만을 하면 그 모임은 비판만하고 일은 못하는 모임이 되는 것처럼 “나”에 대한 태도의 궁극적 효과는 막대한 것이다.

위에 제시한 의논태도와 과정에 의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사항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실행해 나가는 것이 어느 단체나 사회에서 최선의 길이다. 일단 의결된 사항은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여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흔히 대정부(對政府)활동을 연상하기 쉽다. 특히, 우리의 사업이 성업중 일때는 그렇지 않으나 사업이 불황 일때는 정부에 대해 세제혜택, 수매비축, 수출보조 등의 구원을 요청하기 쉽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 사업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고 우리이며, 정부가 시켜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며, 우리가 싫으면 언제나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수가 있다. 더구나 정부의 세제상의 혜택 또는 보조 등은 그냥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도 잊기 쉽다. 그런 정부의 보조 등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 경제를 시행하려는 흐름에 대해 관주도 경제로 역행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인으로서 스스로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뜻을 모으고 이견을 조정해 나갈때, 우리의 업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발전의 한길로 매진하게 될 것이다.\*